

## 한라반 학습 계획

일시 : 2019년 3월 2일

교사 : 김은아

- 목표 : 1. 지난 시간 수업내용을 쪽지시험을 통해 복습할 수 있다.  
2. 흥부전의 내용에 대해 알고,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다.  
3. 영한, 한영 번역을 할 수 있다.  
4. 자주 사용되는 한자에 대해 알 수 있다.  
5. 관용어의 쓰임을 알 수 있다.  
6. 허준과 동의보감에 대한 읽을 자료를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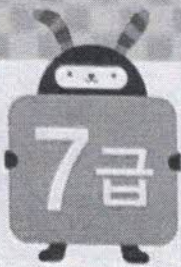
교재 : 브리태니커 사전, 네이버 초등 백과사전, 7급 한자교재, 살아있는 한국어 관용어

교 시	수 업 내 용
1교시 9:30-10:15	숙제 검사 및 쪽지시험
2교시 10:15-11:00	흥부전의 내용에 대해 알고,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점심 11:00-11:20	
3교시 11:20-12:00	번역대회
4교시 12:00-12:40	줌바(박영신 선생님)
숙제	1. 어휘 2. 한자 3. 관용어 4. 읽기자료

오늘 배운 내용과 숙제로 공부해 온 내용을 다음주에 쪽지시험 봅니다.

오늘 번역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빨리따기

월 일

확인

이름

# 江

氵 + 工 = 江

물 수

장인 공



뜻을 나타내는 氵(물 수)와 소리를 나타내는 工(장인 공)을 합쳐서 강을 뜻합니다.

훈강 음강

氵(水)부수(총 6획)

江 江 江 江 江 江 江



필순에 따라 빈칸에 江을 쓰고, 훈과 음을 쓰세요.

江	江	江	江	江	江	江
강강	강강	강강	강강	강강	강강	강강



빈칸에 漢字(한자)의 음을 쓰고, 江이 쓰인 낱말을 읽어 보세요.

·江山( ) : 강과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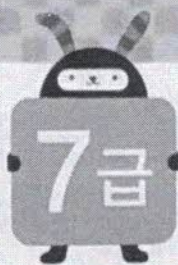
(山 : 메 산)

·漢江( ) : 우리나라 중부를 흐르는 강.

(漢 : 한수/한나라 한)

江의 상대 반의어-山(메 산)





# 빨리따기

월 일  
이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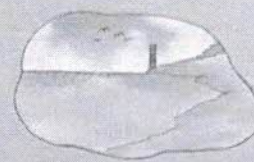
# 海

氵 + 每 = 海

물 수

매양 매

뜻을 나타내는 氵(물 수)와 소리를 나타내는 每(매양 매)를 합쳐서 바다를 뜻합니다.



훈 바다 음 해

氵(水)부수(총 10획)

海海海海海海海海海海

필순에 따라 빈칸에 海를 쓰고, 훈과 음을 쓰세요.

海	海	海	海	海	海	海
바다 해	바다 해	바다 해	바다 해	바다 해	바다 해	바다 해

빈칸에 漢字(한자)의 음을 쓰고, 海가 쓰인 낱말을 읽어 보세요.

• 東海( ) : 동쪽에 있는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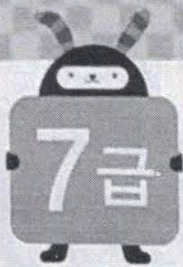
(東 : 동녘 동)

• 海軍( ) : 바다에서 공격과 방어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

(軍 : 군사 군)

海의 상대 반의어-山(메 산)





# 7급 빨리따기

월 일

이름

확인

林

木 + 木 = 林

나무 목      나무 목

두 그루의 나무가 서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로,  
나무가 많이 늘어진 숲, 수풀을 뜻합니다.

훈수풀 음림
木부수(총 8획)
林林林林林林林林林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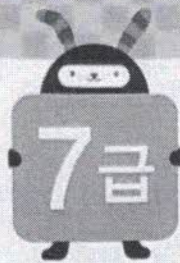
필순에 따라 빈칸에 林을 쓰고, 훈과 음을 쓰세요.

林	林	林	林	林	林	林
수풀 림	수풀 림	수풀 림	수풀 림	수풀 림	수풀 림	수풀 림

빈칸에 漢字(한자)의 음을 쓰고, 林이 쓰인 낱말을 읽어 보세요.

- 山林(    ) : 산과 숲. (山 : 메 산)
- 育林(    ) : 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려 인공적으로 나무를 가꾸는 일. (育 : 기를 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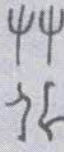


# 빨리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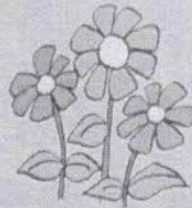
월 일  
이름

확인

花



花



싹눈(艹) 같은 봉오리가 변하여(化) 꽃이 된다는 데서 꽃을 뜻합니다.

훈 꽃 음 화

艹(艸)부수(총 8획)

花 花 花 花 花 花 花 花

필순에 따라 빈칸에 花를 쓰고, 훈과 음을 쓰세요.

花	花	花	花	花	花	花
꽃 화	꽃 화	꽃 화	꽃 화	꽃 화	꽃 화	꽃 화

빈칸에 漢字(한자)의 음을 쓰고, 花가 쓰인 낱말을 읽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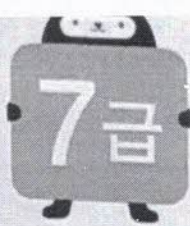
·花草( ) : 꽃이 피는 풀과 나무.

(草 : 풀 초)

·國花( ) : 한 나라를 상징하는 꽃.

(國 : 나라 국)





# 빨리따기

월 일

확인

이름

# 草

亼 → 艸 + 早 → 草

아를 조



처음에는 한 포기 of 풀이 난 모습으로 표기하다,  
 早(아를 조)를 합하여 풀을 뜻합니다.

훈 풀 음 초

艸(艸)부수(총 10획)

草草草草草草草草草草



필순에 따라 빈칸에 草를 쓰고, 훈과 음을 쓰세요.

草	草	草	草	草	草	草
풀 초	풀 초	풀 초	풀 초	풀 초	풀 초	풀 초



빈칸에 漢字(한자)의 음을 쓰고, 草가 쓰인 낱말을 읽어 보세요.

· 草木( ) : 풀과 나무.

(木 : 나무 목)

· 草家( ) : 짚이나 갈대 따위로 지붕을 인 집.

(家 : 집 가)



6 우리나라 江山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아름답습니다.

한  음

7 바다에서 싸우는 군인을 海軍이라고 합니다.

한  음

8 山林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작은 불씨도 조심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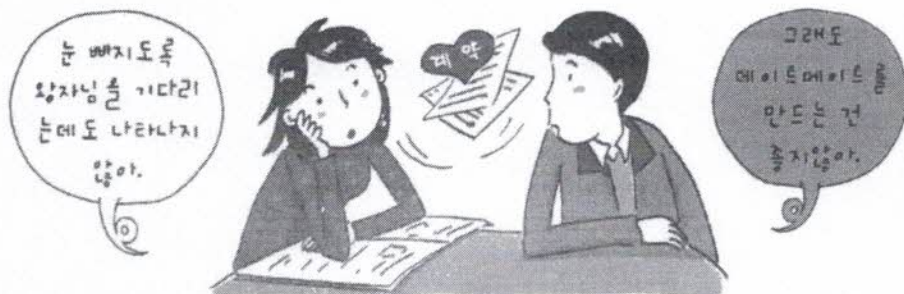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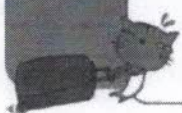
한  음

9 우리나라 國花는 무궁화입니다.

한  음

10 여름이 되면 草木의 색깔이 짙어집니다.

한  음



지 영: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니? 재미있는 신문 기사라도 있어?

민 수: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데이트메이트가 유행이래.

지 영: 룸메이트는 알겠는데 데이트메이트는 뭐야?

민 수: 친구보다는 가깝지만 애인은 아닌 관계를 데이트메이트라고 한대. 쉽게 만나서 데이트하다가 애인이 생기면 헤어지는 계약 연애 같은 거야.

지 영: 그래? 눈 빠지도록 기다렸는데도 백마 탄 왕자님이 안 나타나면 나도 데이트메이트나 구해 볼까?

민 수: 요즘 그게 유행이라지만 너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니? 계약 연애처럼 사람을 가볍게 만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야.

지 영: 서로 필요할 때 부담 없이 만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니? 넌 너무 보수적인 것 같아.

민 수: 글썄, 내 생각은 조금 달라.

※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다: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다

#### 활용예문

- ▶ 우리 할머니께서는 제가 결혼하기만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세요.
- ▶ 아내가 남편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다가 죽어서 돌이 되었는데 그 돌을 '망부석'이라고 한대요.
- ▶ 가: 어릴 때는 설날을 눈 빠지도록 기다렸던 것 같아요.
- 나: 맞아요, 설날에는 새 옷도 입고 세뱃돈도 받을 수 있었잖아요.

#### 새 어휘와 문형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젊다 | <input type="checkbox"/> 데이트메이트 | <input type="checkbox"/> 유행 | <input type="checkbox"/> 관계 | <input type="checkbox"/> 계약 연애 | <input type="checkbox"/> 빠지다     |
| <input type="checkbox"/> 백마 | <input type="checkbox"/> 보수적    | <input type="checkbox"/> 돌  | <input type="checkbox"/> 설날 | <input type="checkbox"/> 세뱃돈   | <input type="checkbox"/> -았/었는데도 |



## 함께해요



다음은 민지가 눈 빠지도록 기다리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눈 빠지도록 기다리는 날은 언제예요? 친구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과 꽃을 선물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날

3월 14일  
화이트데이



남자가 여자에게 장미와 사탕을 주며 사랑을 고백하는 날

4월 14일  
블랙데이



애인이 없는 사람끼리 자장면을 먹는 날

5월 14일  
로즈데이



친구나 애인에게 장미를 선물하며 우정과 사랑을 표현하는 날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친구나 애인에게 빼빼로처럼 길고 날씬해지라는 뜻으로 빼빼로 과자를 선물하는 날



여러분 나라에 특별하거나 재미있는 날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한 걸음 더

- ▶ 목(이) 빠지다(=) 설악산에 가는 날을 목 빠지도록 기다렸는데 비가 와서 결국 못 가게 되었어요.
- ▶ 눈이 어둡다(눈) ①시력이 나쁘다 ②욕심 때문에 판단력이 없어지다  
돈에 눈이 어두워 다른 일에는 관심도 없다.
- ▶ 빠지다 ㉸
  - 이가 빠지는 꿈은 좋은 꿈이 아니지요?
  - 어릴 때 물에 빠진 적이 있어서 물을 무서워해요.
  - 한 달 동안이나 다이어트를 했는데 겨우 1kg이 빠졌어요.





## 대화



왕 방: 에릭 씨, 저 어제 바람 맞아서 기분이 엉망이에요.

에 릭: 네? 어제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왕 방: 아니요, '바람을 맞다'라는 말은 만나기로 약속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쓰는 말이에요.

에 릭: 그렇군요. 그런데 누구한테 바람을 맞았어요?

왕 방: 에릭 씨, 정말 생각 안 나요? 같이 뮤지컬 '명성황후'를 보러 가기로 했잖아요.

에 릭: 아, 이제 생각났어요! 왕방 씨, 정말 미안해요. 그저께 친구들과 밤늦게 까지 술을 마시는 바람에 어제는 하루 종일 잠만 잤어요.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미안해서 어떡하죠?

왕 방: 괜찮아요. 에릭 씨를 기다리다가 지영 씨를 만나서 같이 찜질방에 다녀왔어요. 에릭 씨, 어제 귀 가렵지 않았어요?

에 릭: 하하하, 정말 미안해요. 그럼 이따가 뮤지컬 보러 갈래요?

※ 바람(을) 맞다: 상대방이 연락 없이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다

### 활용예문

- ▶ 선 보기로 한 사람에게 바람 맞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 ▶ 추운 데서 두 시간이나 기다렸는데 결국 바람 맞았어요.
- ▶ 가: 지영 씨한테 또 바람을 맞았다는 게 사실이야?
- 나: 그래, 우울한데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자.

새 어휘와 문형

- ☐ 맞다
- ☐ 뮤지컬
- ☐ 찜질방
- ☐ 선(을) 보다
- ☐ 우울하다
- ☐ 삼겹살
- ☐ 소주
- ☐ -는 바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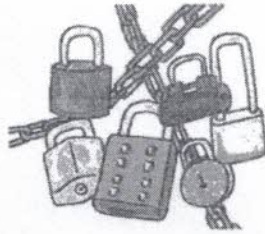




## 함께해요



약속에는 가족과의 약속, 연인과의 약속, 친구와의 약속 그리고 자신과의 약속 등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많은 약속들을 잘 지키고 있어요? 다음의 글을 읽고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중국 장가계라는 지방의 산 정상에는 연인들의 자물쇠가 있다. 이 자물쇠에는 연인들의 이름이 쓰여 있다. 연인들은 자물쇠를 잠근 후에 열쇠를 산 아래로 던진다. 그리고 서로 헤어지지 말고 영원히 함께 하자는 약속을 한다. 만약 약속을 어기고 싶으면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 열쇠를 찾아 자물쇠를 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곳을 지나간 연인들의 사랑의 약속인 것이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바람을 맞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람을 맞힌 적이 있어요?

한 걸음 더

▶ 바람(을) 맞히다(ㄹ)

다른 사람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다  
급한 일이 생겨서 친구를 **바람 맞혔다**.

▶ 바람(을) 쐬다(ㄹ)

기분을 바꾸려고 밖에 나가다  
답답해서 **바람 좀 쐬고** 와야겠어요. 어디 갈 만한 곳이 없을까요?

▶ 맞다

- 8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래요.
- 소나기가 내리는데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았어요**.
- 수업에 늦어서 선생님께 야단을 **맞았어**.



27.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다 28. 바람(을) 맞다



## 연습해요



보기의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다

눈이 어둡다

바람을 맞다

바람을 쐬다

1 가: 왜 그렇게 서두르세요?

나: 오늘이 제 생일이라서 가족들이 제가 오기만을 \_\_\_\_\_  
\_\_\_\_\_ 있어요.

2 가: 여행을 가시나 봐요.

나: 요즘 골치 아픈 일이 많아서 \_\_\_\_\_.

3 가: 약속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요?

나: 약속한 친구에게서 \_\_\_\_\_, 그래서 그냥 와 버렸어요.

4 가: 아까부터 누구를 그렇게 \_\_\_\_\_ 있어요?

나: 민우 씨요, 케이크를 사 오기로 했거든요.

5 가: 오늘 요코 씨 못 봤어요? 시내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_\_\_\_\_

\_\_\_\_\_.

나: 네? 요코 씨는 아까 시내에 간다고 했는데 못 만났어요?

6 가: 지영아, \_\_\_\_\_ 잘 안 보이는데 안경 좀 갖다줄래?

나: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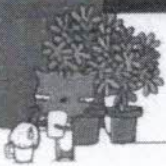


여러분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 \_\_\_\_\_

나: \_\_\_\_\_





## 이야기해요

##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다 / 바람(을) 맞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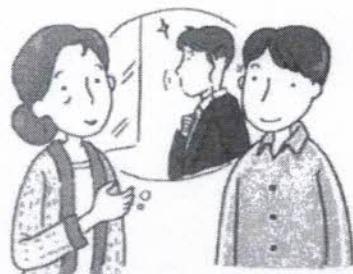


다음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어머니: 승우야, 네 형한테 요즘 좋은 일 있니?

며칠 전부터 달력을 자꾸 보면서 혼자 히죽 히죽 웃고…….

승 우: 아, 데이트 약속이 있나 봐요. 아마 일요일이 되기만을 눈 빠지도록 기다렸을 거예요. 아까 제 옷을 빌려 입고 나갔어요.



어머니: 지난번에 선 본 아가씨를 만나러 가는 거야?

승 우: 아닐 거예요. 그 아가씨한테는 몇 번이나 바람 맞았다고 했거든요. 자세한 것은 저도 잘 몰라요.

어머니: 그럼 누굴까? 이번에는 잘 되었으면 좋겠구나. 네 형 친구들은 벌써 결혼해서 아빠가 되었는데 네 형만 저렇게 결혼도 안 하고 있으니 속상해.

승 우: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면 저라도 먼저 결혼할까요?

어머니: \_\_\_\_\_

승 우: \_\_\_\_\_



위의 대화문을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 1 어머니는 형에게 왜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 2 어머니가 속상해하는 이유는 뭐예요?
- 3 여러분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바람을 맞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새 어휘

☐ 히죽히죽☐ 자세하다☐ 속상하다



## <허준과 동의보감>

### 1. 서자 허준, 스승을 만나다

“아니, 어쩌서 제가 과거 시험을 볼 수 없단 말입니까? 서자(庶子<sup>1</sup>)로 태어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명종 때 허론의 서자로 태어난 허준은 울며 말했어요.

“얘야,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면 어쩌니?”

어머니가 허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공부를 해도 달라질 게 없으니 산에 들어가 중이 되겠습니다.”

허준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전국을 떠돌며 방황을 했어요. 그러다 경상남도 산청이라는 곳에서 의원인 유의태<sup>2</sup>)를 만나게 되었어요.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다.”

허준은 유의태를 만나고 나서야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유의태는 뛰어난 의술(醫術<sup>3</sup>)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이나 명예를 쫓지 않았어요. 그는 늘 해진 옷과 찢어진 갓을 쓰고 다니면서 가난한 환자를 돌보았지요.





약초 이름보다  
환자에 대한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선생님,  
이 약초는  
어디가 아플 때  
쓰는 건가요?

이렇듯 진정한 의원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허준은 먼저 한약방에서 약재(藥材)<sup>4)</sup>를 말리고, 썰고, 담는 등 자잘한 심부름을 했어요. 한약방에서의 잔일들이 웬만큼 손에 익게되자 허준은 일을 하면서 가끔씩 유의태에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이 약초는 무엇이며 어디에 쓰입니까?”

“이 녀석아, 지금껏 약초 하나 제대로 썰지 못하면서 그 이름은 알아 무엇하겠느냐? 약초 이름 몇 개 알아봐야 돌팔이<sup>5)</sup> 의원밖에 안되니 시키는 일이나 잘 하거라.”

유의태는 쉽게 의술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허준은 그런 유의태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의태의 충고를 고맙게 여기며 말없이 맡은 일을 해 나갔지요.





유의태는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아는 허준의 재능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함부로 의술을 가르쳐 주지 않은 건 허준이 그런 재주만 믿고 자만에 빠질까 염려스러웠기 때문이에요. 허준이 약재를 능숙하게 다루게 되자, 유의태는 허준에게 모든 의술을 전해 주었어요.

“의술은 손재주나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환자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한낱 병을 고치는 기술자일 뿐 진정한 의원은 아니니라.”

“알겠습니다, 스승님.”

허준은 유의태의 말을 새겨들었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그 말을 되새기면서 진정한 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잠깐 퀴즈

허준에게 의술을 가르쳐 준 스승은 누구인가요?

정답 : 유의태



## 2. 어의가 된 허준

총명하면서도 성실하게 의술을 펼친 허준은 스무 살이 되었을 때 제법 유명해졌어요. 하지만 실력 있는 의원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 보는 궁중 의사의 길은 스물아홉이 되어서야 시작했지요. 늦은 나이에 내의원 시험에 합격한 허준은 그 다음 해 왕을 보살피는 어의(御醫)<sup>6)</sup>가 되었어요.

조선 시대 왕실의 의료 기관으로는 궁궐 안에서 임금의 약을 조제하는 '내의원'과 약재를 공급하는 '전의감'이 있었어요.

당시 왕이었던 선조는 허준의 의술을 믿었어요. 어의가 된 지 십여 년이 흐른 어느 날, 왕자에게 병이 나자 선조가 허준을 불러들였어요.

"그래, 왕자의 병을 고칠 수 있겠소?"

"염려 마십시오. 왕자님은 무사하실 것입니다."

선조는 허준의 말을 굳게 믿었어요. 허준은 밤을 새워 가며 왕자를 돌보았어요. 며칠 후 왕자는 병을 물리치고 일어났어요.





“그대는 일찍이 없던 조선의 명의(名醫)7)요.”

선조는 크게 기뻐하며 허준에게 당상관의 벼슬을 내렸어요. 당상관은 정3품에 해당하는 벼슬로 매우 높은 자리였어요. 그러자 많은 신하들이 불만을 쏟아 냈어요.

“내의원 의관이 왕자님을 치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벼슬을 거두시옵소서.”

신하들이 선조에게 강력히 청했지요. 그러나 선조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허준을 가까이 두었어요. 또 임진왜란이 일어나 선조가 피난을 갈 때는 허준이 옆에서 건강을 돌보았어요. 허준은 그 공로(功勞)8)로 공신이 되었어요.

“우리 나라의 의술이 중국에 뒤지지 않으나 완성된 의학책이 없구나. 내의원에서는 백성에게 도움이 될 의학책을 완성하라.”

선조의 뜻에 따라 허준은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정유재란9)이 일어나 허준은 잠시 책 만드는 일을 중단해야 했어요.



이어 선조까지 병이 들자 허준은 선조를 치료하기 바빴지요. 허준의 정성어린 치료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끝내 세상을 떠났어요.

“허준은 어의로서 선왕 전하를 치료하지 못하였으니 벼슬을 빼앗고 귀양을 보내야 하옵니다.”

신하들이 다음 왕인 광해군에게 청했어요. 세자 시절에 허준이 자신의 병을 고쳐 준 것을 아는 광해군은 허준을 보호하려 했어요. 그러나 신하들의 반발(反撥)10)이 워낙 심해 광해군은 허준을 궁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 3. "동의보감"을 완성하다

궁에서 나온 허준은 의학책을 쓰는 일에만 전념(專念)<sup>11)</sup>했어요. 그리하여 광해군 2년 우리 나라 최고의 의학서인 <동의보감>이 완성되었어요. 허준은 광해군을 찾아갔어요.

"이것이 <동의보감><sup>12)</sup>이오?"

"그렇습니다. 선왕께서 그토록 기다리셨던 책이옵니다."

허준은 감격에 겨워 목이 메었어요.

"참으로 장한 일을 하였습니다. 선왕 전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이 두루 볼 수 있도록 하겠소."

광해군은 허준이 완성한 <동의보감>을 펴내기 위해 내의원에 특별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3년 후 드디어 책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지요. 허준이 <동의보감>을 만들기 시작한 지 16년 만의 일이었어요.

허준과 <동의보감>

당시의 백성들은 병이 들고 아파도 누워있을 수 밖에 없었어요. 큰 병에 걸린 사람도 돈이 없어 죽을날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게다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백성들은 더욱 가난해졌고, 전염병으로 곳곳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허준은 이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의술을 펼쳤어요.

허준이 지은 <동의보감>에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나는 약재로 우리나라 사람의 병을 고친다는 깊은 뜻이 담겨있어요. 또한 <언해두창집요>, <언해구급방>과 같이 한글로 의학책을 만들어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도 쉽게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했어요.

### 4. 내용 정리

서자로 태어나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었던 허준은 집을 나와 전국을 떠돌다 의원인 유의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허준은 약방에서 심부름을 하며 의원이 되겠다는 뜻을 세우고 유의태에게 의술을 배웠습니다.









허준은 궁중 의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선조의 어의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의술을 발전 시켰고, 선조의 명으로 새로운 의학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허준은 광해군 때 마침내 <동의 보감>을 완성하였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허준과 동의보감 (천재학습백과 초등 스토리텔링 한국사)

<한자>

\* 다음 한자를 읽어보세요.

天地 (            ) : 하늘과 땅

自然 (            ) : nature

大川 ( 대        ) : 큰 강

<역사 >

1. 광해군은 (        )나라와 (        )이 싸울때 두 나라와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나라의 이익을 얻기 위해 중립외교를 했다.
2. 광해군은 전쟁을 막고 군사를 키우며 문화를 발전시키는 등 많은 업적을 세웠지만 왕위를 지키기 위해 형제들을 죽이기도 했다. 서인들은 그것을 이유로 하여 반란을 일으켜 (        )를 왕으로 세우고 광해군은 (        )로 귀양을 보냈다.
3. 인조가 왕이 된 후 명나라의 편을 들자 1627년 후금이 조선을 침략해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을 가게 된 싸움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                    )
4. 후금이 힘을 키워 만든 나라 이름은? (                    )
5. 1636년 청 태종이 조선을 침략해 온 싸움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                    )
6. (                    )의 치욕 : 조선의 왕인 인조가 청나라의 태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땅에 머리를 대고 절을 한 사건. 이로써 조선은 명나라와식 관계를 끊고 청나라의 간섭을 받았다.



25\_ 눈(을) 감아 주다 26\_ 눈에 불을 켜다



## 연습해요



보기의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보기

눈감아 주다    눈 딱 감다    눈에 불을 켜다    눈에서 불이 나다

1 가: 노트북을 새로 샀어요?

나: 네, \_\_\_\_\_ 사 버렸어요. 디자인도 예쁘고 성능도 좋아요.

2 가: 밤 11시 이후에는 기숙사에 들어갈 수 없다고 들었어요.

나: 그런데 기숙사 선생님께서 내가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_\_\_\_\_.

3 가: 어머니, 이 약은 너무 써서 못 먹겠어요.

나: 쓴 약이 몸에 좋은 거야. \_\_\_\_\_고 어서 먹어.

4 가: 지금 \_\_\_\_\_ 뭘 찾아요?

나: 제 휴대폰요. 분명히 책상 위에 두었는데 없어졌어요.

5 가: 우리 아빠는 동생이 버릇없는 행동을 해도 \_\_\_\_\_.

나: 동생이 아직 어려서 그렇게 하셨을 거야.

6 가: 도서관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학생들을 보면 \_\_\_\_\_.

나: 나도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집에서 공부해요.



여러분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 \_\_\_\_\_

나: \_\_\_\_\_